

돼지 (*Sus scrofa domesticus*): 숭배와 혐오

“그러므로 인간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성립되는 시점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단지 발생생물학적 기술이 완료되어 기형과 기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시점에 가서나 재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황우석, 1997



글 김우재

미국 UCSF 박사후연구원
heterosis.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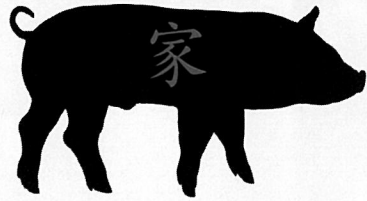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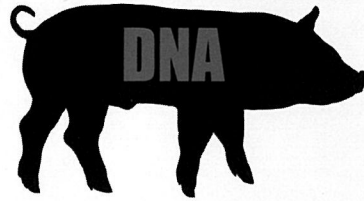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후 포항공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UCSF에서 초파리 행동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다.

“돼지는 인간에 의해 가장 먼저 사육된 동물의 하나로 인간의 집에 살면서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해왔다. 한자의 집을 의미하는 글자인 ‘가(家)’자는 돼지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돼지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집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김인희

돼지에 대한 인류의 관념은 숭배와 혐오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농경 문화권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돼지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결혼이나 축제와 같은 행사에 사용되는 중

요한 제물이다. 반면 잘 알려진 것처럼 중동 지방에서는 부정한 동물이다. 마빈 해리스는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이를 ‘생존을 위한 생태학적 전략의 하나’로 소개한다. 기후조건이 척박했던 중동지역에서 곡물을 먹고 자라는 돼지는 인간의 생존에 오히려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돼지는 굿이나 고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제물로 사용되며, 돼지머리를 놓고 지내는 고사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라지지 않는 관습이다. 한국사회에서 돼지꿈은 복권구입의 청신호가 되며,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어 저축하는 관습은 돼지가 복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돼지는 숭배의 대상에서 단순한 제물로 변해갔는데, 더럽거나 게으른 것을 돼지와 연관짓는 전통은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종장기이식연구의 유망주 ‘돼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는 소설에서 인류의 기원이 동굴에 갇힌 원숭이와 돼지의 잡종이라는 허풍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베르베르의 상상력을 자극할만큼 돼지는 인간과 가깝다. 약 9000년 전에 중국과 근동 지방에서 각각 멧돼지가 가축화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미토콘드리아 DNA 추적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6개 이상의 지역에서 독립적인 돼지 가축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의 유전체는 19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만 6천 개의 유전자와 26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져 있다.

집을 뜻하는 한자의 ‘가(家)’자에 돼지가 숨어 있을 정도로, 돼지는 인간과 밀접하다. 돼지의 인슐린은 인간과 아미노산 서열 1개만이 달라서, 초기 당뇨병 치료를 위해 수 없이 많은 돼지들의 체장이 희생되었다. 이를 반종이라고 하듯이, 이종장기이식 연구에서 가장 유망한 동물이 바로 돼지다.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장기이식의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간의 선의를 믿기엔 공여 장기의 수급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고행장기는 겨우 10% 정도의 이식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후 장기기부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공여 장기의 수급불균형은 결국 불법 장기 매매를 통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벼랑으로 몰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장기를 팔아야만 하는 비극을 초래한다.

미니돼지가 장기이식의 유망주로 떠오르는 이유는 돼지의 생리·해부학적 특징이 영장류를 제외하고 인간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영장류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은 번식기간이 길고 대량사육이 불가능하며 멸종위기종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인간과 가장 닮은 영장류의 경우 장기이식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다.

반면, 미니돼지는 인간과 장기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돼지는 인간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인간의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감염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돼지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은 당뇨병, 낭포성 섬유증 및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큰 산업적 가치를 갖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그 산업적 가치

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부산물로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도 성장한다. 돼지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연구야말로 면역학의 금지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장기이식은 다양한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권에 따라 형성된 숭배와 혐오

인간체세포복제로 황우석 연구팀이 물의를 일으키기 전, 황우석은 무균돼지 복제에 성공했다며 직접 새끼 무균돼지를 받는 장면으로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드라마를 연출한 바 있다. 물론 훗날 그 돼지는 시카고 의대 김윤범 교수에게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언론의 화려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이 무균돼지를 이용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출판되지 않았다. 숭배는 혐오로 형질전환되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역설적으로 돼지고기 수입의 신호탄이 되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등의 16개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다. 한국인의 식탁은 ‘세계 삼겹살의 경연장’으로 불린다. 2010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산 채로 땅에 묻혔다. 농가와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땅에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살아 있는 돼지들을 땅에 파 묻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잠시 출렁였을 뿐 다시 회복되었다. 숭배와 혐오는 공존한다.

인류는 돼지를 게으름과 외모를 비하하는 상징으로 사용하면서도, 돼지라는 가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돼지숭배와 돼지혐오는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문화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곡물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곳에서 돼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고, 그런 문화권에서 돼지는 복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곡물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에서 돼지는 인간과 식량을 두고 경쟁하는 해로운 동물로 인식되었고 종교적 터부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혐오가 형성되었던 맥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좁혀진 혐오의 관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전략이 종교적 금기로 굳어졌을 때 벌어지는 비가역성은 비극이 된다. 정치와 종교로 넘어간 관습들은 이처럼 상황적 선택을 가로막는 벽을 제공한다. **ST**